

전일동향

전일대비 2.80원 상승한 1,441.80원에 마감

2일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일대비 2.80원 상승한 1,441.80원에 마감했다.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0.50원 상승한 1,439.50원에 개장했다. 환율은 작년 말 가파르게 떨어진 데 따른 저가 매수세와 결제 및 해외 투자 환전 수요가 네고 물량보다 적극적으로 유입됨에 따른 상승세가 펼쳐지며 1,441.80원에 증가(15:30 기준)를 기록했다. 주간 장중 변동 폭은 5.00원이었다. 한편, 이날 외환시장 마감 시점의 엔-원 재정환율은 919.02이다.

전일환율변동	구분	시가	고가	저가	종가	평균환율 (매매기준율)
	달러	1439.50	1447.40	1439.00	1441.80	1442.10
	엔화	918.92	922.86	917.34	919.02	-
	유로화	1690.83	1698.20	1688.78	1689.40	-
* 시가/고가/저가/종가 : 달러는 익일 06:00 기준, 엔화 및 유로화는 15:30 기준						

F/X(달러-원) 스왑포인트		1M	3M	6M	12M
	보장환율(수출)	-1.49	-5.31	-10.8	-19.67
	결제환율(수입)	-1.05	-4.22	-8.79	-16.18
*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,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					
*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,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(https://www.ksure.or.kr/rh-fx/index.do) 확인					

금일 전망

리스크 온 분위기에...1,440원대 초반 중심 등락 전망

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(-1.45원)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(1,441.80) 대비 0.30원 상승한 1,440.65원에서 최종호가 됐다.

금일 환율은 달러 강세와 지정학적 불안 등에 소폭 상승 전망한다. 유로존 제조업 경기가 2개월 연속 위축세를 기록함에 따라 유로화가 약세를 보였다. S&P글로벌에서 발표한 미 12월 제조업 PMI(확정치)는 51.8로 집계되며 예상치 51.7을 상회했으나 이전치대비 0.4%p하락하며 강달러를 뒷받침할 전망이다. 이에 폴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는 미국 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간다면 추가 금리 인하가 적절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. 또한, 주말간 미국과 베네수엘라 간 지정학적 긴장에 따른 위험회피 심리와 실수요 차원의 달러 매수세 등도 환율 상승에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판단된다. 한편, 불과 2~3주 사이에 달러/원이 약 40원 급락하면서 달러 실탄이 필요한 수입업체는 적극적인 매수 대응으로 일관할 것으로 보이며 거주자 해외주식투자 환전 수요도 상승을 부추길 전망이다. 다만, 상단에서 당국 경계감이 지속되고 있는 점과 증시 외국인 투심 회복 및 수출 네고 복귀는 상단을 제한할 전망이다.

금일 달러/원 예상 범위	1437.33 ~ 1445.67 원
체크포인트	■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: +6309.3 억원
	■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(NDF) :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0.30원 ↑
	■ 美 다우지수 : 48382.39, +319.1p(+0.66%)
	■ 전일 현물환 거래량(종합) : 74.58 억달러
	■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: +4036 억원